
2026 글로벌 정책 현황: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위한 단백질 공급 다변화 **공공 투자**



gfi[®]

목차

시리즈 소개.....	3
요약.....	4
미주.....	8
아시아 태평양.....	17
유럽.....	29
중동, 아프리카.....	41
국제 협력 및 조율.....	43
방법론 참고 사항.....	44
GFI에 대해.....	45

감사의 말

저자

Mackenzie Battle, Michael Carter

기여자

Ankur Chaudhary, Grace Liu, Anne Reshetnyak,
Arghadeep Saha, Manuel Netto,
Kimiko Hong-Mitsui, Hila Goldenberg, Yeonjoo La

편집

Jessica Colley Clarke, Liz Fathman, Tara Foss

디자인

Kelli Crowsigt, Joseph Gagyi, Emily Hennegan

프로젝트 매니저

Emily Giroux

자문

Sophie Armour, Rodrigo Bonilla, Rachel
Colombana, Vinicius Gallon, Ryan Huling,
Emma Ignaszewski, Erin Rees Clayton,
Tina Rodousakis, Sheila Voss

표지 이미지 Fry Family Foods 제공

시리즈 소개

산업 현황 보고서 시리즈는 빠르게 변화하는 대안 단백질 생태계를 매년 심층적으로 다루는 굿 푸드 인스티튜트(GFI)의 대표 보고서 시리즈다. 이 보고서 시리즈는 관련 기업 현황과 제품 동향, 투자 및 판매 데이터, 새로운 과학적 진전, 공공 투자 및 규제 동향을 종합해 업계 전반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배양, 식물성, 발효 유래 대안 단백질 부문이 기존 육류와 가격, 맛, 접근성 측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살펴보려면, 각 부문의 기술적 성숙도와 시장 수용 여건을 함께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 수준은 과학적 실현 가능성, 공정·설비 측면의 구현 가능성, 혁신 역량,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 시장 수용성,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기반 등의 범주에서 진전 상황과 과제, 전반적인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할 수 있다. 이 시리즈는 지난 한 해 동안 실제로 나타난 발전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리한다.

2026년 산업 현황 보고서 전체 시리즈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요 참고 사항

- \$ 기호가 사용된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표시했다. 그 밖의 통화는 별도로 표시했다.
- 굿 푸드 인스티튜트는 인가받은 투자 또는 금융 자문사가 아니며, 본 보고서의 어떠한 내용도 투자 자문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 보고서 제목 변경 사항: 기존에는 GFI가 각 산업 현황 보고서의 제목에 보고서 내용이 다루는 연도를 사용했으나, 2026년부터는 발행 연도를 사용한다. 내용의 기준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 2026 The Good Food Institute, Inc. 모든 권리 보유. 본 보고서 중 GFI가 작성한 콘텐츠는 The Good Food Institute를 출처로 표시하는 경우 비상업적 교육 목적으로 무료로 복제할 수 있다. 사진, 그래픽, 인용문 등 제3자 콘텐츠에는 별도의 권리 및 허가가 적용된다.

요약

5년이 지난 지금, 변곡점에 선 각국 정부

굿 푸드 인스티튜트가 식물성, 배양 유래, 발효 유래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정부 투자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 5년 동안, 산업과 세계는 크게 달라졌다. GFI의 2021년 보고서에서 약 7억 달러였던 정부 투자 누적액은 2025년 기준 최소 25억 달러로 늘어났고, 대안 단백질 육성에 나선 국가는 16개국에서 최소 33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제 대안 단백질 공급원은 전 세계 국가 경제 전략과 생명공학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 프로그램에서도 관심 주제로 점점 더 많이 포함되고 있다. 규제기관도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경로를 명확히 하고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한마디로,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무역 혼란 속 혁신, 국내 생산 회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의 필요성

2025년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 그러나 과학자, 기업가, 정책입안자들이 단백질 공급원을 다변화하면 경제, 환경, 식품 공급망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입증해 온 덕분에, 이러한 접근법은 현실적인 대응 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새로운 무역 장벽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공급망이 흔들리자, 정책입안자들은 식물성 단백질, 발효, 배양육을 활용해 안정적인 국내 식품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투자했다. 캐나다와 프랑스의 사업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농업인과 생산자가 현지 재배 단백질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인도,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는 연구자들이 지역 농업 부산물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연구했다. 또한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 한국 등에서는 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공동 바이오제조 시설 건설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국내 지향적 흐름은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이 농업 지역, 농촌 공동체,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흐름과 맞물려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농업 부산물 연구는 새로운

시장과 가치 창출 기회를 만들어 지역 농업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극적인 정부들은 자국 농업 부문의 부산물이 차세대 식품의 핵심 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러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책입안자들은 생산 과정에 농업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와 독일의 프로젝트는 농업인과 식품 생산자가 새롭게 부상하는 식품 및 생산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EU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배양육 생산 설비가 낙농장에 직접 설치되었다.

생명공학·바이오제조 전략 속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의 부상

중국과 유럽연합은 2025년 신규 투자를 주도했으며, 양측 모두 바이오제조 역량을 전략적·경제적 우선순위로 인식했다. 중국 국영 국가개발투자공사(State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rporation)는 2025년 식품 분야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생명공학 시설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유럽 내 연구에 수천만 유로를 추가로 지원한 데 더해, 식물성 및 발효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1억 유로, 즉 1억 1,300만 달러가 넘는 대출을 제공했다. 인도, 일본, 영국도 인프라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사를 보였으며,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는 자국 스타트업에 지원하기 위해 공동 활용 발효 시설 건설에 직접 자금을 지원했다. 주요 경제권 가운데 미국 연방 정부만은 정부 전반의 과학기술 예산 삭감 속에서 식품 생명공학 투자를 뚜렷하게 축소했으며, 식물성, 발효 유래 또는 배양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신규 연구비는 600만 달러에 그쳤다.

새로운 단백질 생산 시스템을 생명공학 전략에 포함시킨 정부들은 바이오제조 역량을 미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으로 키우고 있다. 바이오제조 인프라는 식품, 연료, 의약품, 화학제품, 건설 및 제조 소재 등 다양한 바이오제품 생산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이 부문을

국가안보, 전략적 대비 태세, 다양한 경제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로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이 정도 규모의 인프라를 위기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유지하려면, 더 큰 생산시설과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이 필요한 대중 시장용 대량 생산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발효와 배양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식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상업 생산시설은 여러 바이오제품을 오가며 생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양으로 설계될 수 있고, 위기 시 필요한 핵심 물자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며, 상시 훈련된 인력이 운영하고, 자유시장 내 꾸준한 수요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의 Novel Protein Bio-Manufacturing Innovation Center, 네덜란드의 Cultivate at Scale 시설, 캐나다의 Neptune BioInnovation Centre와 같은 연구 허브에 투자함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은 바이오제조 기반을 지탱할 수 있는 고품질 대중 제품을 개발하고, 스타트업이 연구 단계에서 상업 생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고 있다.

신규 배양육 제품 판매 승인과 계속되는 식물성 라벨링 논쟁

2025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의 식품을 규제하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이 배양 메추라기 제품을 승인했다. 이로써 호주·뉴질랜드는 싱가포르와 미국에 이어 배양육 제품에 판매 승인을 내린 세 번째 지역이 되었다. 또한 호주·뉴질랜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신규 식품 제도와 별도로 배양 식품을 승인하는 별도 절차를 활용했다. 한국은 2024년에 유사한 절차를 확정했고 이미 여러 신청을 접수했으며, 아부다비, 중국, 일본, 영국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절차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2025년 미국에서도 또 다른 두 가지 최초 사례가 나왔다. 최초의 배양 수산물 제품과 최초의 배양 돼지고기 제품이 규제 승인을 받은 것이다.

동물성 제품의 대안이 되는 식품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2025년에는 서로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났다. 쟁점은 이러한 제품에 “sausage”나 “steak”처럼 육류를 연상시키는 용어, 또는 “chicken”이나 “pork” 같은

동물 관련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중요한 점은 제품이 식물성임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들이 이러한 용어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용어는 맛과 조리 방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제품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과 공중보건을 위해 식물성 식품 수요를 촉진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일부 EU 국가 등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라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달라지는 투자 흐름과 공통 목표

지역별 동향, 자원 여건, 문화적 인식의 차이로 인해 새로운 식품 생산 체계를 발전시키는 접근 방식도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일부 공통된 글로벌 흐름도 확인된다. 전 세계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바이오매스 발효와 정밀 발효에 투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부는 배양육에 더 많은 투자를 했고, 유럽과 미주 지역 정부는 식물성 단백질에 더 많이 투자했다. 연구 보조금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었고, 2025년에는 여러 양자 연구 보조금이 발표되면서 실제로 국경을 넘는 협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럽과 미주 지역은 상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보조금과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나 공공·민간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설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각국 정부가 다양한 식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한 가운데, 식물성 치즈와 발효 유래 치즈의 개발 및 생산에서는 유럽이 단연 세계를 선도했다.



Kerry Ingredients의 원료를 사용해 만든 식물성 육류 및 유제품 대안품. 사진 제공: Kerry.

달라진 세계, 달라져야 하는 방법론

지난 5년 동안 세계가 더 복잡해진 만큼, 대안 단백질에 대한 투자를 추적하고 분류하는 과정 역시 한층 복잡해졌다. 이제 이 부문의 기업들은 직접 보조금뿐 아니라 정부 지원 대출, 대출 보증, 혼합금융, 직접 투자를 받고 있다. 새로운 연구는 여러 기술 부문과 제품 카테고리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고, 생명공학 리더십과 바이오제조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약정은 식품 생산을 강조하면서도 그중 식품 분야에 정확히 얼마가 투자되는지는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화는 식물성, 발효 유래, 배양 유래 단백질 공급원에 긍정적인 신호다. 이들이 일반 연구 공모, 투자 포트폴리오, 바이오경제 계획에 점점 더 많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대안 단백질에 대한 정부 투자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추적하는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기존의 투자 보고 방식도 덜 정확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중국이 국영기업을 통해 광범위한 생명공학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어느 정도가 공공 재원에서 나온 투자인지, 그중 얼마가 대안 단백질을 만드는 기업 또는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기반 인프라를 지원하는지, 제공된 투자가 상환 의무가 없는 자금인지, 또는 양허성 조건의 자금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앞으로 이 보고서들은 관련 통계를 포함해 지난 한 해의 활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기존처럼 최대한 제공하되, 연간 총 투자액을 하나의 대표 수치로 산정하는 방식은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공공 투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1,000건이 넘는 연구 프로젝트, 사업 보조금, 대출, 대출 보증, 이니셔티브,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도 많다. GFI의 2021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 세계 정부는 취약한 공급망, 심화되는 기후 재난, 향후 팬데믹과 항생제 내성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리고 경제를 어떻게 견고하게 유지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이러한 위협은 더욱 분명해졌지만,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기술의 잠재력 역시 더욱 분명해졌다.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들은 농업·농촌 지역과 공중보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에 힘을 싣고 있으며, 바이오제조 역량을 크게 높이고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자원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발효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곳에서 영양을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배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은 모두 회복력 있고 번영하는 식품 공급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쉽게도 현재 확보된 지원과 실제 필요한 지원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5년 전 [글로벌 혁신 수요 평가\(Global Innovation Needs Assessment\)](#)는 대안 단백질 섹터가 성숙되었을 때의 편익을 온전히 실현하려면 각국 정부가 매년 대안 단백질에 101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편익에는 최대 980만 개의 일자리, 1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 식품 공급의 회복력, 글로벌 보건, 환경 안보 측면의 이점이 포함된다. 전 세계 정책입안자들의 진전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2025년 각국 정부의 추정 투자액은 이 기준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다 폭넓은 생명공학 개발 프로그램은 더 회복력 있는 식품 공급체계에 필요한 인프라와 인력을 구축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지만,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식품 공급체계를 만들려면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지원 자금이 필요하다.



Bärta 버거 패티와 오리나무 훈연 콜드컷.
사진 제공: Bärta.